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슈퍼스타K 2’ 존박
 뮤직팜과 전속 계약

엠펙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2’에서 2위를 한 존박이 김동률, 이적의 소속사인 뮤직팜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뮤직팜은 “존박과 3년 간 전속 계약을 맺었다”며 “그가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뮤직팜은 이어 존박이 올 가을께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존박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가수로 자리매김 하고자 뮤직팜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무대 서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데뷔 33년...5월 세종문화회관 공연 **인순이**

올해로 데뷔 33년된 가수 인순이(54)가 보여주는 세계는 스펙트럼이 넓다. 나이트 클럽, 시골 군민 잔치부터 세종문화회관, 미국 카네기홀 등 어떤 무대에서도 주인공이 된다. 또 ‘뮤지뱅크’ ‘7080 콘서트’ ‘가요무대’ 등 세대 차가 뚜렷한 방송도 아우른다. 1978년 희자매 시절 데뷔곡 ‘실버들’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는 오는 5월 7-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더 판타지아(The Fantasia)’란 타이틀로 공연한다.

“말로는 무대를 즐기지만 팬들의 마음에 들려면 준비 과정이 치열하죠. 관객이 좋아해야 살아남으니까요. 전 행사에서도 행사 취지, 관객 연령대에 맞춰 현장에서 곡목을 바꿔요. 어르신이

“혼혈인 편견과 한계 극복해온 33년
 지역·장소 따라 늘 새로운 변화 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150% 노력으로 채워”

부터 최근 신곡인 힙합 댄스곡 ‘어퍼컷’까지 장르의 한계없이 음악도 회춘을 거듭한다.

이 대목들은 지금 가요계에서 50대의 인순이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입지를 말해준다. 인순이는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며 지금의 내가 됐다”며 “스스로를 달달 볶는 성격, 관객이 원하는 어떤 무대든 오르겠다는 생각이 내 한계를 하나씩 지워줬다”고 했다.

요즘도 그는 인생이 고달플 정도로 새 무대

많으면 그날은 트로트쇼, 또 ‘열린음악회’가 경사도·전라도·충청도, 학교·공설운동장 등 어디나 에 따라서도 노래가 달라져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니 모든 무대가 서바이벌이죠.”

그는 스스로 ‘히트곡이 많지 않은 디바’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히트곡이 많았다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의 곡을 부르며 원곡 만큼 부르려고 노력했거든요. 공연을 ‘당신’곡으로 채우는 대신배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다 행히 과거 첫 공연 때 제 곡 4~5곡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절반 이상을 제곡으로 채워요.”

오히려 약점은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는 “공연 때마다 새로운 곡을 채우다보니 매번 새로운 공연이 된다”며 “그래서 관객들이 ‘이번엔 인순이는 뭘할까’란 기대를 가져주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아이돌 그룹 사이니의 ‘링딩동’과 DJ.DOC의 ‘립투유’ 등 젊은 세대곡, ‘7080’ 세대 롤러장을 대표하는 음악, 추억의 전통가요 메들리, 뮤지컬 ‘시카고’와 ‘페인’의 한 대목을 선보인다.

“링딩동’처럼 젊은 친구들 노래의 비트와 발음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또 완년에 한 춤 치지만 노력 안하면 안 되고요. 신곡 작업 때 주로 젊은 작곡가와 하는데 ‘어린 후배들과 똑같이 지적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야 제가 발전하니까요.”

인순이의 가수 인생 33년은 환경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시간들로 느껴졌다. 그는 “난 혼혈이란 뿌리로 인해 살얼음판을 걸듯 조심스럽게 살았다”며 “150% 노력해야 사람들이 80~90%를 알아줬다. 많이 넘어져 보니 어떻게 넘어져야 될 아픈지, 빨리 일어나는지 알겠더라. 이젠 90% 노력하면 120%를 알아준다”고 말했다.

인순이는 무대가 있었기에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살았다고 했다. 그렇기에 관객이 있는 모든 무대는 규모와 장소를 막론하고 소중하다.

“제가 대중 가수에게 인색한 예술의전당 얘기를 했을 때 ‘나이트클럽에 서는 사람이’란 말도 들었어요.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픽업’때 방송에 나갔고 지금도 공연해요. 며칠 전 상계동의 클럽에서 제 노래에 귀 기울여주는 관객들이 고마워



눈물이 나왔어요. 제겐 카네기홀도 좋지만 모든 무대가 소중해요.”

그는 무대가 주는 힘을 믿는다. 그는 “쓰러질 것처럼 아파도 얼굴에 분 바르고 극장 근처에 가면 순간 치유가 된다”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웃으며 노래하고 내려와서 평평 울었다. 아마 무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MBC TV ‘나는 가수다’도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재조명되는 무대가 되길 바랐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찬성할 만한 무대예요. 하지만 서바이벌로 인해 상처받는 가수의 마음도 헤아려줬으면 해요. 관객의 거침없는 인정이 가수에게는 보약이거든요.”

연립뉴스

“불꽃 같던 여자 보내고 쉬고 싶어요”

‘욕망의 불꽃’ **신은경**

“삶의 마지막 처럼 보낸 7개월
 흑한속 강행군에 동상 걸리기도
 휴양도 하고 술도 왕창 먹고 싶어요”

“작품 들어가기 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일하자 마음먹었고 이런 마음으로 7개월을 보냈어요.”

지난달 종영한 MBC 주말극 ‘욕망의 불꽃’에서 신은경은 불꽃 같은 여자 윤나영을 연기했다. ‘독한 캐릭터’라 그는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연기에 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드라마는 부진을 딛고 시청률 20%를 넘겼다.

“졸 전에 세트장 촬영을 마치고 와서 아직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번쩍 떠질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그동안 했던 작품 중 가장 후유증이 심하지 않을까 싶네요.”

신은경이 열연한 나영은 부와 명예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언니를 배신하기도 하고 친필을 버리기도 한다. 재벌가 아들과 결혼에 성공하지만 그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발목을 잡으며 점점 수렁으로 빠져든다. 감정의 극단을 오가는 캐릭터인 만큼 한 회에서 울고 웃는 연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체력이나 감정 면에서 소진이 컸을 법한데 그는

“캐릭터에 이입되다 보니 연기하면서 몸이 힘든 느낌이 없었다”며 밝게 웃었다.

다만 “감정의 기복이 심해 연기하기 힘들었다”며 “복합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 다면적인 부분까지 표현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7개월의 촬영은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서울과 울산은 오가며 겨우내 촬영에 매달렸고 캐릭터 비중도 절대적이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손끝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 동상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데 추운 데 너무 오래 있다보니 피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마지막 촬영하면서 또 손끝이 시려서 병원에 갔네요.”

신은경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로 나영이 아들 민재(유승호)에게 했던 ‘남을 하고 싶은 데로 다 하고 편하게 살면서 어떻게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냐’를 꼽았다. “어렵고 힘든 장면이 많아서 그런지 이순재, 이효준 선배님 등 함께 출연했던 모든 분이 다 애뜻해요. 그분들 보러 가는 게 좋았는데 앞으로 못 보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요.”

“아직은 나영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다”는 그는 “캐릭터를 떠나보내는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당분간 쉬고 싶다는 그는 “따뜻한 데로 휴가로 가고 술도 왕창 먹어보고 싶다”며 웃었다.

연립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SINCE 1982
www.kjhr.com

국제보청기

- * 매우 잘 들립니다.
- * 안보입니다.
-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장안내 ★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225-9940



총장점

☎062)227-9970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합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층 국제보청기

종로점

☎02)765-9940